

‘펜싱’ 김지연, 국제대회 연이은 입상



기뻐하고 있는 김지연 선수.

SK텔레콤 남아사브르 국제그랑프리 개인전 '은' 튀니지 국제월드컵펜싱선수권 단체전 '동' 획득

익산시청 펜싱선수단의 여자 사브르팀의 김지연 선수가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튀니지 튀니스에서 벌어진 2019 튀니지 국제월드컵펜싱선수권대회에서 단체전 동메달을 따내며 지난날 2019 SK텔레콤 남~녀사브르 국제그랑프리 펜싱선수권대회에서 개인전 은메달을 따낸 이후 한달만에 다시 국제대회 메달을 획득하며 꾸준한 기량을 과시하고 있다.

국가대표 여자 사브르 단체전 16강전 경기에서 폴란드대표팀을 45-23로 물리치고 8강전에 올라 미국 대표팀을 45-43로 이기고 준결승전에 올라 우크라이나 대표팀에 39-45로 아쉽게 패하며 3.4위전에 올라 일본에 45-43으로 이겨 단체전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로서 국가대표 김지연 선수는 올해 각종 국제대회에 출전하여 개인전 은메달 1, 동메달 1, 단체전 동메달 1개를 획득하여 국제대회 총3개의 메달을 따내며 건재함을 과시하였고 앞으로 남은 국제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예상해 볼 만하다.

김지연 선수는 국내대회에서도 개인전 은메달 1, 동메달 1, 단체전 금메달 2, 은메달 1개를 획득하여 총5개의 국내대회 메달을 획득했다. 익산시펜싱팀의 만연인 역할을 하고 있는 김지연 선수는 묵묵히 앞에서 선수들을 리드하며 실업 최강 익산시펜싱팀의 건재함을 이끌어가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우리 여자 펜싱 사브르팀이 올해도 국내 최고의 면모를 보여주며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특히 김지연 선수가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으로 우리시 홍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앞으로 경기도 부상 없이 실력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익산=장원익 기자



군산소방서, 화재현장 필수 소방전술 훈련 평가 실시

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제 화재현장에서의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13일 소방서에 따르면 안전한 진압활동 전개에 위해 '화재 현장 강한 소방관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5월 한달 동안 화재현장에서 꼭 필요한 소방전술에 대한 훈련과 능력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전술훈련 및 능력평가는 소방공무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재난현장에서 효과적인 현장 활동을 위해 개인별 기초훈련 숙달 정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화재현장에서 필수적인 공기호흡기장착 및 비상호흡법에 대해 훈련하고 이에 따른 개인별 평가를 실시한다.

특히 화재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인명구조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실제 활동도가 높은 기구류기 등 로프매달법에 대해 자체 훈련 및 실제 활동 빈도가 높은 기구 류기 2가지를 랜덤으로 선택해 평가하고 있다.

권기현 방호구조과장은 "지속적인 전술훈련을 통해 대원들의 현장대응 능력을 키워 다변화된 재난현장에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소방서는 화재 예방 및 진압 활동과 태풍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인명구조 활동을 비롯해 안전한 군산을 만들기 위해 응급처치 순회 교육, 지역 내 복지시설 및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사랑 나눔을 실천해 귀감이 되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전주대 박물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3·1운동 유적 답사

전주대학교 박물관(관장 홍성덕)은 최근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와 연계한 3.1운동 유적 답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3·1운동 유적 답사는 전북독립운동추진단, 전주 풍남문, 남부시장 광장, 전주 3.1운동 발생지를 거쳐 전주신사로 가는 길목이었던 다카고 등 역사 현장을 탐방했다.

전주대 박물관장 홍성덕 교수와 전주대 학예연구사가 동행하며 생생한 설명을 통해 역사적인 현장에 생동감을 불어 넣어 그 당시 상황을 더욱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다.

오는 24일에는 한강 이남 최초의 3.1운동지민 군산에 방문해 근대역사박물관-군산근대문화유산거리-일본식 가옥-풍곡사 등 유적지를 둘러 볼 예정이다. 박현수 학예연구실장은 "3.1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정신을 되새기고 흠여져 있는 일제의 잔재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3.1운동 유적지 답사를 기획했다"며, "전주지역의 3.1운동 유적지를 탐방하며 전주 시민, 학생들에게 잊혀지는 우리 고장의 역사를 알리고 되짚어 보는 의미 있는 문화답사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특별전은 전주대 스타센터 아트갤러리에서 6월 3일까지 전시된다. 유적지 답사는 전주 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전주대 박물관(063-220-2158)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진안군, 회계 관계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현장교육

진안군은 13일 진안군청 강당에서 회계 관계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상반기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회계통계센터의 찾아가는 현장지원단 지원 사업에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회계담당 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지방회계통계센터 회계실무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고양시청 양상운씨가 강사로 초빙되어 △회계의 원칙과 절차,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출출처 및 실무사례 등 현장에서 겪은 다양한 사례 위주로 교육을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군 관계자는 "회계분야에 직접 근무한 강사의 현장감 있는 교육으로 회계를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회계교육과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 관리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부음

▲조만산(한국국토정보공사(LX) 부사장) 모친상 = 빈소: 광주광역시 천지장례식장 302호(서구 풍서로173-1), 발인: 14일 오전 7시, 장지: 전남 신안군 압해읍 선영하, 연락처: 062-527-1000



전북대 외국인 유학생, 춘향제에서 전통문화의 매력 '흠뻑'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 외국인 유학생들이 최근 제89회 춘향제에 참여해 전통문화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다.

전북대 유학생 80여명은 이날 춘향제의 다양한 공연과 볼거리를 관람한 것을 비롯해 길거리 퍼레이드와 한복 문화 등을 체험하며 한국의 전통 문화를 몸소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춘향제를 참여한 많은 관광객들과 전통 문화로 어우러지는 시간도 가져 한국의 따뜻한 정도 직접 경험해볼 수 있었다.

이번 춘향제에 참여한 키르기스스탄 유학생 메이만쿨라바나즈비케(23·무역학과 3년) 학생은 "그동안 학교에서 공부하느라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쳤는데,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행사를 통해 힐링하는 시간이었다"며 "한국 문화를 더욱 가깝게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동현 국제협력본부장은 "이번 춘향제 행사를 통해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다 쉽게 이해하며 유학에 대한 자긍심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다 시문과의 협약을 통해 다양한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외국인 학생이 즐겁게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원광대 전인우 교수, SSCI급 국제저명학술지에 논문 게재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경영학부 전인우 교수가 영국 Routledge, Taylor and Francis Group에서 발행되는 SSCI급 국제저명학술지 'Asia Pacific Business Review' 2019년 4월호에 주저자로 논문을 게재했다.

전인우 교수는 '조직문화와 부패의 용인(Organizational Culture and the Tolerance of Corruption)'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으며, 영국 옥스퍼드대학 크리스 로울리(Chris Rowley) 교수와 군산대 김경민 박사가 함께 참여했다.

이 연구는 한국 사회 및 기업체에서 고위층에 의한 부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 및 그 부패들이 쉽게 수용되는 이유를 조직문화 측면에서 접근했으며, 다른 선진국과 달리 한국 사회에서 부패가 비교적 쉽게 발생하고 용인되는 주된 문화적 이유는 높은 권력 간격(High Power Distance), 낮은 부패인식(Low Corruption Perception), 세습경영에 의한 오퍼 리스크, 갑질 문화, 정경유착 문화 등임을 실증연구를 통해 분석했다.

한편, 전인우 교수는 이번 논문 외에도 2014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SSCI급 국제저명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했으며, 특히 2014년 'Business History'에 게재된 논문은 'Most Read Article'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 /익산=장원익 기자

무진장소방서, 주택화재 예방 주택용 소방시설 비치 중요성 강조

무진장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비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주택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거시설 안전관리 강화로 군민 생활안전과 재산취약계층을 보호하며, 주택화재를 원천적 발생 억제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에 의의가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2가지로 구성돼 있으며, 화재 발생 시 초기에 화재를 인지하여 대피 할 수 있도록 경보음을 발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초기화재에 사용되는 소화기로 구성돼 있으며, 감지기는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고 소화기는 각 세대별 또는 층별 1대를 비치해야 한다.

소방서에서는 각종 교육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중요성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사용법 ▲노후소화기 교체방법 ▲화재발생 시 대처요령 등을 안내하며 교육·홍보 진행을 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비전대 지적도목학과, 공간정보특성화전문대학 협약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 지적도목학과가 국토교통부(공간정보산업진흥원)와 2019년 공간정보특성화전문대학 협약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공간정보산업진흥원(원장 김수곤)과 전주비전대학교, 대구과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등이 참가했다. 이들 3개교는 공간정보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의 근본취지를 살려 공간산업분야의 미래 인력양성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전략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은 전주비전대학교에 4차산업혁명의 공간정보 융합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공간정보 특화교육프로그램 운영, 지형공간정보시스템(GIS) 서비스 개발 분야, 공간교육인프라 구축 및 사업관리와 홍보를 위해 3년 동안 매년 1억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심정민 사업단장은 "전주비전대학교는 공간정보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의 전문인력 양성기관만큼 최상의 교육으로 호남지역 공간정보산업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4차산업혁명시대의 핵심으로 부상한 공간정보 분야의 미래 수요형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군산시 세무과 직원, 장애인거주시설 방문 이웃사랑 실천

군산시 세무과 직원들이 관내 장애인거주시설을 방문해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해 귀감이 되고 있다.

시 세무과 손길나눔봉사대는 나포면에 소재한 길벗공동체를 방문해 시설 안팎으로 환경정화활동과 함께 준비한 생활용품을 전달했다.

정용기 세무과장과 직원들은 "미약하지만 솔선수범해 시설에 거주하는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봉사활동을 통해 아름다운 군산 만들기에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남원경찰 여성청소년과,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유무 점검

남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14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되는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장애인체육대회가 열리는 남원춘향골체육관과 남원춘향골 물리경기장 내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선수대기실 등에 대해 보유중인 전문탐지장비를 활용하여 불법촬영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했다.

선수들이 사용하는 관내 숙박업소 24개소에 대해서는 이미 사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불법촬영은 범죄임을 알리는 홍보스티커를 사용자가 많은 화장실 등에 부착하고 시설관계자에게는 주기적인 점검을 권고했다. /남원=김기두 기자